

미사시간

주 일: 11:00 AM
화요일: 7:00 PM
목요일: 10:00 AM

고해성사

매 미사 30분전

예비자교리

주일 10:00 AM

캔사스 한인 천주교회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Kansas

9130 Pflumm Rd. Lenexa, KS 66215
(913)563-7896 www.kckcatholic.org

주보 편집 : 박동희 안나 660.853.9984 flyanna@gmail.com

주임신부 주영길 토마스
M: 913.633.1273
jooyk88@gmail.com

회 장 안동현 프란치스코
M: 913.219.8066
Tonghyun.An@gmail.com

부 회 장 정수한 베드로
M: 913.707.8142
scnn8@hotmail.com

재 무 차호섭 요셉
M: 614.598.7908
hscha72@gmail.com

오늘의 전례



오늘은 연중 제27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참된 종은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묵묵히 실천하였으면서도 어떠한 보상도 바라지 않는다고 가르치십니다. ‘군인 주일’이기도 한 오늘, 이 나라를 지키는 데 주어진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고자 애쓰는 국군 장병들과 그들을 보살피는 군종 사제들을 위하여 기도해야겠습니다.

성화해설

눈물을 흘리고 있는 성베드로
(엘 그레코, 1600년, 유채, 워싱턴 DC. 필립스컬렉션 소장)

‘주님께서 몸을 돌려 베드로를 바라보셨다. 베드로는 주님께서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너는 나를 세 번이나 모른다고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밖으로 나가 슬피 울었다.’(루카 22,61-62) 예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말로 표현 못할 감사함으로 인해 베드로처럼 눈물만 흘릴지 모릅니다. 그것은 우리의 부족함보다 그분의 사랑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해, 우리는 하느님의 큰 사랑을 체험하며 그분께 대한 믿음을 굳세게 해야겠습니다.

지영현 시몬 신부 | 한국가톨릭미술가협회

제 1 독서: 하바 1,2-3; 2,2-4 < 의인은 성실함으로 산다. >

화 답 송:

주 님 의 목 소 리 를 오 늘 듣 게 되 거 든

너 희 마 음 을 무 디 게 가 지 지 말 라.

- 어서와 하느님께 노래 부르세. 구원의 바위앞에 목청 돋우세. 송가를 부르며 주님앞에 나아가세. 노랫가락 드높이 주님을 부르세. ◎
- 어서와 옆드려서 조배드리세. 우리를 내신 주님앞에 무릎 꿇세. 당신은 우리의 하느님이시네. 우리는 그 목장의 백성이로세. ◎
- 주님의 목소리를 오늘 듣거든 너희의 마음을 무디게 말라. 너희 조상이 나를 시험하고 내일을 보고도 시험하려했네. ◎

제 2 독서: 2티모 1,6-8.13-14


< 그대는 우리 주님을 위하여 증언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 주님의 말씀은 영원하시다. 바로 이 말씀이 너희에게 전해진 복음이다. ◎

복 음 : 루카 17,5-10 < 너희가 믿음이 있으면! >

공동체 소식



연중 제 27 주일



아버지, 저자께 한 알만 한 믿음이라도 보시고 저희 기도를 들어주시니, 저희가 겸손한 마음으로 온 힘을 다하여 아버지의 나라를 전하게 하시며, 쓸모없는 종인 저희를 부르신 아버지의 위대한 사랑을 온 세상에 드러내게 하소서.

10월 기도지향

- 김정환(요한), 김윤아(글라라) 가정
- 유길수(크리스토퍼), 유경애(아네스) 가정

전례 성가

시 작	예 목	성 체	마 침
480	221	160/164	271

주일미사 복사

	향 복사	시종 복사
금주	안광민(야고보), 안광희(크리스토퍼)	
차주	정병훈(보니파시오)	이우영(가브리엘)
	안지영(카타리나)	이원준(요 한)

전례 봉사자 및 독서자

	해설자	제1독서	제2독서
금주	김명은(안 젤 라)	조장군(바 오 로)	우숙정(아나스타시아)
차주	김수연(올리안나)	류기범(요 셉)	신혜경(마 리 아)

애찬 봉사자

금주	김시연, 조경희, 이대숙, 김말자, 배복선
차주	야외미사

헌금 봉사자

금주	야외미사
차주	문석찬(요셉), 최은미(아네스)

우리들의 정성

하느님께 드리는 헌금과 교무금에 정성을 다해투셔서 감사합니다!!!

	참례인원	헌금	교무금
09/22	93명	339불	550불
09/29	81명	354불	700불

목주기도 성월

기도의 경우도 사랑의 경우와 같습니다. 처음에는 말이 넘쳐나고 얼마간은 의견이 오갑니다. 그런 뒤 침묵이 시작되고 한두마디로 서로를 이해하게 됩니다. 어려움에 처했을 때도 몸짓과 시선으로 충분합니다. 아무것도 소용없고 서로 사랑하는 것으로 족합니다. 그러므로 말이 너무 많으면 목상이 힘겹고 거의 불가능해지는 시기가 옵니다. 이 시기에는 소위 호칭 기도, 즉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여.” “예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등과 같은 몇 마디 안 되지만 내용은 풍부하기 이를 데 없는 표현들을 무한히 반복하는 그런 기도가 한창 입에 오르내리게 됩니다. 목주기도는 아주 드높은 영감으로 가득 찬 기도로서 널리 생활화되고 사랑받는 기도입니다. <까를로 까레또>

본당 야외미사

- 일시 : 10/6(일) 오전 11시
- 장소 : Shawnee Mission Park (Shelter 8)
- 점심식사 후, 공원 내 걷기 대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가벼운 옷차림과 운동화를 준비하시어 함께 걷고, 경품도 타가기 바랍니다.

맨하턴 공동체 미사

- 일시 : 10/12(토) 오전 11시
- 장소 : 성 토마스 모어 성당

기타

- 지난 10/1(화), 사제관과 회관 창문 교체 작업과 실내 조명 작업이 있었습니다. 수고해 주신 평협 임원께 감사드립니다.
- 야외미사에 수고해 주신 행사분과와 구역분과에 감사드립니다.